

장애인 복지 관광 정보접근성 확대, 제주여행 100배 즐기자!



‘이지제주’, ‘장애 in 제주’, ‘오디오 투어 가이드’, 점자책자 등 제작 배포 2014년 장애인관광코스 개발, 장애인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계획

간만에 제주를 찾은 오영철 (45, 뇌병변 1급)씨 일행은 기분 좋은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여행 웹사이트 ‘함께하는 여행’을 비롯해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약자 복지관광 매뉴얼 ‘이지제주’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애in제주’ 덕분에 편안한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장애 in 제주’에서 추천한 한담동 해변을 둘러봤다.

공항에서 나와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로 30여분 달리자 한담동 소공원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늘빛을 닮은 쪽빛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제주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이어서 찾은 곳은 ‘함께하는 여행’에서 추천하고 있는 절물 자연휴양림이다.

휴양림 편의시설은 완벽했

다. 오름을 끼고 있는 휴양림이다 보니 경사가 있어서 수동 휠체어를 타고 혼자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듯 했으나 활동보조인이 있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은 나무데크를 따라 휴양림을 체험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듯 했다.

오씨는 “몇년 전 제주여행을 왔을 때는 여행지는 물론 식사할 곳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숙소를 찾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책자와 인

터넷, 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정보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보다 많은 정보들이 채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를 찾는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정보접근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 서귀포시장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발간한 ‘이지제주’에는 도내 관광지를 비롯해 숙박업소, 음식점, 병의원 등의 이동접근 환경을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조사해 보행장애가 있는 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 담겨있다. (문의: 서귀포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4-762-17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주의 지원을 받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인 ‘장애in 제주’를 선보였다. 휠체어 이용자가 주출입구 접근 가능한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음식점, 병의원 등 303곳을 소개하고 있다.

(주)제주생태관광은 지난해 11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씨니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여행을 돕기 위한 오디오 투어 가이드를 배포했다. 오디오 투어 가이드 ‘제주편’은 바람, 여자, 돌을 뜻하는 삼다를 주제로 각 코스를 소리와 내레이션으로 구성했다. (SK 씨니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음) 올해부터는 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생태여행 프로그램 개발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도 시각장애인들이 제주오름과 음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오름 걷기여행’과 ‘제주밥상 표류기’를 점자도서로 집역, 출판하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행복하게 제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 등을 행정시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규정에 어긋난 곳은 시정명령하거나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인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으며, 장애인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개소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신규사업 추가 발굴
서귀포시, 청소년 육성사업에 40억 투자
- 사회복지소식 4·5면
11대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
서귀포시장장애인복지관, Job코디사업 운영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청소년지도사 고용안정 및
차우개선 정책토론회
- 기획 8면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1)
법률상담터(7)

3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4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서귀포시장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가정의 가족애(愛)강화를 위한 가족통합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인형극 교실 및 인형극단 활동 가족힐링체험(공동농장, 요리교실, 가족캠핑) 등	대상 및 모집기간: 발달장애인가족(5가족) / 3월~12월 센터(프로그램실) / 무료	733-6613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장애·비장애 하모니를 통한 상생으로 행복바이러스 전파하기II”	장애인어울림 “띠앗” 합창단 제4기 합창단원 모집	대상 및 모집기간: 도내 거주 장애인 20명내외 / 3월 31일까지 일시장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제주성안교회	753-4980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제주시지부	2014년도 2분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수화 초급, 중급, 고급반 개설 초급(30,000원), 중급(40,000원), 고급(50,000) 책값 별도	4. 8(화) ~ 6. 19(목) 3개월(총20회) / 19:00~20:00 주2회(화, 목) 제주시지부 교육장(탐라장애인복지관 3층)	757-2120 727-7744
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 서귀포시지부	2014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교육일정	수화 초급, 중급반 개설 초급(40,000원), 중급(50,000원), 책값 별도	3. 3(월) ~ 5. 7(수) / 18:30~19:30 주2회(월, 수) 서귀포시지부 교육장(칠십리 공원 내)	733-681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례관리 전문가 양성교육 심화과정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평가 역량강화 자원개발 및 조직화 역량강화 사례관리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역량강화 장애인, 아동, 노인분야별 사례관리 전략 등	장애인분야: 2014. 3. 4(화), 7(금), 10(월), 12(수) 10:00 ~ 18:00 (총28시간) 아동분야: 2014. 3. 11(화), 13(목), 14(금), 17(월) 10:00 ~ 18:00 (총28시간) 노인분야: 2014. 3. 19(수), 20(목), 21(금), 24(월) 10:00 ~ 18:00 (총28시간) 협의회 삼다수홀(2층) / 무료	702-378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자교육 (1/4분기)	회계기초과정, 인사급여과정, 고객관리과정	회계기초과정: 3. 25(화) ~ 3. 26(수) 10:00 ~ 18:00 인사급여과정: 3. 27(목) 10:00 ~ 18:00 고객관리과정: 3. 28(금) 10:00 ~ 18:00	
연강병원	3월 가족교육	알코올중독(강사: 전문의 서혜진 과장)	3. 21(목) 17:00~18:00 / 연강정신과의원 회의실	726-7900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	개원식	표창패수여, 라운딩 등	3. 7(금) 11:00 / 성자현 1층 다목적실 대상: 지역주민, 사회복지관련 관계자 등	746-7977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신규사업 4개 추가 발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신부 토탈케어 서비스 등 4개의 신규사업을 개발, 72억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7개 사업에 월평균 1,1590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청소년 맞춤형성장지원 서비스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어르신 여가활동 서비스 ▲아동 청소년 음악 멘토링 서비스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

소년 치유 서비스 ▲아동 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예술치료 서비스 ▲임산부토탈케어 서비스 ▲가족역량강화 지원서비스 ▲장애아동 음악재활 지원 서비스 ▲성인재활 정신건강 서비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사랑 나눔 봉사단 구성



서귀포시 여성가족과(과장 고인자)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동참하는 사랑나눔 봉사단을 구성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지난달 15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샘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시설 아동들을 위한 간식을 전달하고 시설 내부청소와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시설을 찾은 아동들과 함께 놀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는 등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참여 활동의 폭을 넓히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개인운영시설과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사업의 유형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장애인식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사업,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및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심사결과는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이 최종확정된 후 4월 초에 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를 받게 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4월초부터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요양보호사와 업무협력 체계강화

제주시는 의료급여대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요양보호사와의 업무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달 19일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의료급여 재정실태,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방법, 적절한 의료이용 안내 등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및 요양보호사들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여 적정 의료이용을 도모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역별, 시설별로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급여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어린이집 전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540대의 어린이집 전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억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되는 이 사업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신고되고, 9인승 이상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블랙박스 설치하는 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 출산장려 시책 내놓아

제주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셋째이후 자녀 출생시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에 매달 5만원씩 1년 동안(60만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첫째아인 경우 1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일 경우 12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을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시술비 일부 지원을 포함해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신청선대사이상 관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다자녀 가정 우대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를 발급해 대형마트나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휴양림 숙박시설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도 감면해 주고 있다.

위기 저소득층 위해 9억여 원 예산 투입

특별생계비 비롯 위기가정 지원 등 불우계층 지원을 위해 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은 수준의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법령이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 등으로 인해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장 등 저소득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생계비 지원, 교복비 지원, 저소득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 및 간병인부임 지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위기가정 250가구에 가구별 40~60

만원, 1억1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216가구에 2억1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1100명에게 교복비 35만원씩 3억8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도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60가구에 100만원 이내, 6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90만원 이내, 1억8033천원을 책정했다.

장한 장애인, 아버지, 도우미 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노력해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장애인 및 기관,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추천접수를 받고 있다.

수상후보자는 ‘장한장애인 대상’ 분야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선발할 예정이며, ‘장애인아버지대상’은 자녀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훌륭히 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부모를, ‘장애인도우미대상’은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이나 기관 침 단체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행정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단체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장,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인 이상 연서로 가능하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소정양식의 추천서, 공적조서(명함사진 1매 포함)와 함께 공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추천서 양식은 도청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수상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되며, 대상자에 대한 시상상은 오는 제3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수여할 예정이다.



제주시 평생학습관은 1시민 1평생학습 확산 및 정착을 위해 ‘2014년도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발굴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내용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제안강좌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시티

즌 강좌 ▲장애인, 장년층 등 교육소외계층과 읍·면 교육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소외계층(지역) 대상 강좌 등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오는 7일까지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평생학습관 728-8695, 8680)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계획 수립

서귀포시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14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다기능 우수 복지관 실현을 위해 3개기능별로 나누어 총 9개 분야 40개 사업(사례관리, 가족기능강화 8개, 지역사회보호 14개, 교육·문화 4개, 자활 1개, 지역특화 1개, 복지네트워크구축 2개, 주민조직화 5개, 자원개발 및 관리 4개)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복지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 시키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지역복지증진에 힘써 나갈 예

정이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와 독거어르신 결연사업으로 사회적가족만들기, 청소년의 또래관계증진을 위한 WE프로젝트 친한 친구교실,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미지배움터, 이민자의 사회 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읽기 쓰기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배움의 뜰 문해학교 등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8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출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13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8기 여성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2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학계 6명, 언론 시민단체 3명, 관광문화 1명, 여성계 1명, 보건복지 1명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오는

2016년까지 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한다.

또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나 여성의 지위향상, 복지증진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정책제안 및 자문역할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및 자문한다.

제주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실시

제주시(시장 김상오)는 행복
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한 제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
~2018)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주민복지육구 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올해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해로, 이를 위한 기초조사인 ‘제주시 지역주민 복지욕구 조사’를 오는 4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욕구 조사는 보건복지부 표준 설문서를 기반으로 전문조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시민들이 복지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해 맞춤형 복지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제안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제안내용은 ▲저소득층의 효율적인 자활자립사업 추진방안(프로그램)▲경제적 위기가정에 대한 효과적인 복지지원방안 ▲학대 아동과 노인에 대한 예방 및 보호체계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지원체계 ▲일반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아이템 ▲보육,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지역복지, 저소득층등에 대한 복지시책관련 의견 등이며 제주시 주민복지과나 읍·면·동 복지부서로 하면 된다.

(문의 : 제주시지역사회복지
협의체 064-728-2474)

서귀포시, 청소년 육성사업에 40억 투자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충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육성’을 비전으로 올해 4개 분야 22개 사업에 총39억6000만원을 투입해 청소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 및 여건조성을 통한 청소년 활동 역량 개발을 위하여 수련시설 기능보강 개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3개소(수련관 2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1개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모구리 야영장 환경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중점적으로 27억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전한 여가·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활동지원 강화,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페스티벌,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의 9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및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하는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지원 및 학업지원,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위기 청소년의 일탈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보호 활동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자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정기후원 19개 업체 나눔가족 현판 전달



서귀포시는 ‘헌디드럼 행복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 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를 위한 나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사랑나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월 3만원 이상 정기후원을 신청한 19개 착한업체에 “나눔 가족” 현판을 제작해 전달했다.

이날 양병식 서귀포시장은
나눔가족 서귀포시-1호점 실
이네닭곰탕집을 직접 방문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원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함께 나눔가족 현판을 전달했다.

양 시장은 “작은 가게지만 선뜻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월 5만원씩 기부를 한 실이네 닭곰탕에 고마움을 표한다”라며 “나눔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임을 오늘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서귀포시를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 재단은 올해 서귀포시 소외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총 2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나눔가족 현판이 서귀포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서귀포시와 함께 나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정기 후원을 접
차 확대시켜 나가고, 이를 통
해 모아진 성금으로 서귀포
시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접
차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지원

제주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업자금,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의료

비 등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최대 5000만원
까지이며,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조건이
다.

이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에

게 출퇴근용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자동차구입자금(최대 1000만원(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까지 고정금리 3%에 5년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64-728-3441)

“변화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장, 11대 제주사회협회장 당선
첫 직선제, 90.8% 투표율 ‘역대 최다’ 기록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협회장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당선됐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회협회(이하 제사협) 회장에 기호 2번 임태봉(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관장)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장 선거와 같이 치른 이번 11대 제사협 선거는 9785명의 회원 중 381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나서 90.8%(346명, 무효표 2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호 1번 한형범 후보는 총 91표를 득표했으며, 기호 2번 임태봉 후보는 253표를 얻어 제11대 제사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임태봉 당선인은 “전자투표는 물론 서귀포 등에 투표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에 달하는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제주 사회복지계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방증하는 사건”며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늘 가슴에 새기며 군림하는 게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협회로 발전시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임 당선인은 “1만 제주사회복지사의 시대를 맞아 열린 첫 직선제 선거에서 역대 최다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는데 어깨가 무겁다. ‘찾아가는 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협회’를 만

들어 나갈 것이며 일터에서 행복한 사회복지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보수체계 개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봉 후보의 주요공약은 ▲사회복지사 취미,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현장 사회복지사 ‘힐링’ 국내외 연수 지원 ▲재충전을 위한 쉼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 실태조사 및 자원 맵 수립 ▲사회복지 유공자 포상 조례 제정 추진 ▲정년 퇴직한 사회복지사 포상제 도입 등이며 도협의회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동제주복지관

청소년 경제증권교실 제주거점센터 선정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청소년경제증권교실 제주거점센터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소년경제증권교실은 삼성증권 대학생 봉사단(YAHO)이 각 기관에 4명씩 매칭 되어 월 2회 90분씩 초등학교 고학

년을 대상으로 총 15회기에 걸쳐 경제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월 4일 삼성증권 대학생 봉사단 면접을 시작으로 2월 17일 사업 협약식 및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가진 후 1년간 제주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라복지관, 신년맞이 송편만들기 진행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 1월 28일 송편만들기 행사에 이어 지난달 14일 단배식을 진행했다.

송편만들기는 설을 맞이해 (주)제주은행(행장 허창기)의 후원으로 지역 어르신들과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원아와

(주)제주은행 봉사단이 함께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시간이었다. 예쁘게 빚은 송편은 지역주민들에게 음료수와 같이 나눠주어 명절에 송편을 함께 나눠 먹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단배식은 아라LH노인회(회장 이순애)·청년회(회장 양국환), 아라LH관리사무소(소장 홍영림),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 지역대표자들이 함께 아라동주민센터(동장 김방식)와 내빈을 초청해 함께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경로효친사상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정혜재활원 두 번째 체험홈 ‘은혜의 집’ 입주식 가져



서는 그동안 정혜재활원에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인 ‘준비가정’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4명의 지적장애인과 1명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함께 생활하며 가사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여가활동 등 자립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하게 된다.

정혜재활원 관계자는 “이번 체험홈의 개소로 장애인분들의 집단생활과 직업생활을 통해서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고, 이웃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비장애인의 통합을 유도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달성하여 총체적인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15일 정혜재활원의 두 번째 체험홈인 ‘은혜의 집’ 입주식을 가졌다.

서귀포시 동홍동 명원참숯빌라에 위치한 은혜의 집에는 지적장애인 4명이 입주해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은혜의 집에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JIBS 라디오 <최재혁의 뮤직파워> 협찬 계약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장 이민숙)은 지난달 19일

JIBS 본사에서 <최재혁의 뮤직파워> 라디오 프로그램 협찬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 중 하나인 도자기 액자를 3~8월까지 6개월 간 상품협찬을 하게됐다.

최재혁 아나운서는 “타 협찬사와 차별성있는 제품이라는 것, 협찬하고자 하는 시설 제품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번 방송협찬을 통해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와 근로장애인 급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 LCD 광고판 설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지난 1월 23일 복지관 사업홍보 및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한 LCD 광고판을 설치했다.

이날 설치된 광고판은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 및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통해 알리고 싶은 행사 등도 홍보함으로써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의 : 064-753-2740)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Job코디사업 운영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장애학생이 취업문턱을 넘는데 힘을 보태고자 고등학교 3학년 및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위주로 '학교-사업체-복지관이 함께하는 장애청소년의 자립 및 직업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Job코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Job코디사업은 장애청소년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업체 연계를 통한 현장실무능력 향상을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

동모금회로부터 중장기기획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job코디사업은 1차년도인 올해는 사업 참여 참가학교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2차년도인 2015년에는 대안학교를 더 늘리고, 1~2개교의 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을 높일 예정이다. 3차년도인 2016년에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올해 Job코디사업 내용으로는 제주도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참가자 45명 모집, 상담 및 사례관리, 직업상담 및 평가, 진로직업 탐색교실, 도내 사업체 10곳 발굴 후 현장실습(인턴십프로그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등이 있다. 특히 올해는 진로직업 탐색교실을 주1회 연중 실시하여 단계별 직업교육의 지속성을 확보했으며, 취업장애인 자조회 모임, 취업장애인간담회 분기별 실시 등 취업 후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취업장애인의 취업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임태봉 관장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청소년의 욕구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실습 지원체계 개발을 통한 최적화된 현장훈련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청소년의 취업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다각적인 지원체계 및 정책적인 지원방안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덕의집, charity 아카데미 욕구조사 실시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3년째 지속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charity 아카데미' 사업에 앞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가 강좌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 학원을 적극 이용하고, 8개의 강좌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은성복지관, 김치나눔 행사 개최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지난 1월 4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가졌다.

새터민,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이번 김치나눔 사업은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우리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탐라복지관, 법률자문위원 위촉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은실)과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는 지난달 10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실에서 이연봉변호사를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법률자문위원 위촉으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상담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위미에덴요양원 어르신, 마트 나들이



위미에덴 요양원(원장 양지연)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일상을 벗어나 바깥나들이를 하며 계절의 정취를 느끼고 체험을 통한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드리우고자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필

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체험을 실시했다.

여러 가지 생활용품 및 식료품, 가전제품 등을 보시고, 일대일 케어자와의 대화를 통한 기억력 회복훈련 및 추억을 회상하는 시간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제주웰빙양계영농조합법인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후원

제주웰빙양계영농조합법인(대표 이육기)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에 계란 200판을 후원하고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비롯한 제주도내 피학대어르신 등 사례관리 대상 어르신들께 전달해드렸다. 어르신들은 추운 겨울을 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준 제주웰빙양계영농조합과 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도자원봉사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달 19일 미래컨벤션센터에 모여 협의회 회원단체 대표 및 자원봉사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성안복지재단, 나눔회와 일촌맺기 결연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김익남)은 지난달 11일 후원단체 나눔회(회장 정양석)와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일촌맺기' 결연을 맺었다.

나눔회의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조손가정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2월 식품기탁자

▲김숙희씨=쌀 20kg ▲김은숙씨=겨우살이풀 한약 1첩, 장식품 10개, 사조선 물세트1호 1개, 찜질팩 1개, 한우1 kg, 잡곡 1.5kg, 감자 3kg, 맥심커피믹스50입 2개, 유자차 2,200g 1개, 스팸특선2호 3개, 고사리 1kg ▲금강축산유통=육류635 kg ▲김치원=김치60 kg ▲농림축산식품부=김치16 kg ▲동원F&B제주=식재료 1340개 ▲삼다유통=삼다수(2L×6) 300팩 ▲서문식품=두부 487모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 이도점=빵 190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0봉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양배추 79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713봉 ▲무기명=세탁세제 1개, 폼글렌징 2개, 바디워시 1개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1월 후원금 현황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 후원	1,130,000	0
난치병환아후원	90,000	0
자원봉사 후원	2,590,000	2,590,000
복지사업 후원	1,672,388	165,000
푸드마켓 후원	3,975,000	4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칼럼

달인의 품격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부원장

김연아의 아이스쇼를 본 적이 있다. 그때 바로 내 앞에서 김연아가 공연을 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얼음판을 장판보다 수월하게 다루는 것 같은 그녀의 연기력이 놀라웠고, 그 누구보다 빠르고 높게 점프하면서도 솜털처럼 가볍게 착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여왕에게는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나보다 했었다.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밴쿠버 때만큼의 기량은 아니라 하더라도 성숙미가 더해져 더 편하게 음악과 하나가 되어 클린연기를 마쳤을 때 김연아의 두 번째 금메달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심판판정은 달랐다. 그간 떠돌던, 김연아의 최대약점은 한국 국적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한탄까지 나왔다.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경기 판정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하던 21일 뉴욕타임스는 ‘뒤틀린 금

(Gold, with a twist)’이라는 제목으로 논란의 금메달 소식을 상세히 다룰 정도였다.

그러나 당사자는 달랐다. 김연아는 판정은 심판의 영역이라며 결과에 의연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며 최선을 다한 과정에 만족해했다. 그리고 금메달이 더 절실한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팬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하고 억울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김연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오히려 은메달이라서 여왕의 위엄이 더 빛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림픽 2연패의 신화를 달성했다면 금메달에 가려져 두드러지지 않았을 그녀의 인성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오죽하면 22일자 중앙일보 제1면 머릿기사가 ‘쿨한 연아, 우리를 위로하다’였을까. 위로받아야 할 이가 오히려 남을 위로하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일만시간의 법칙’에서 말하는 달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일만시간의 두 세배가 넘는 노력을 17년 동안 해오면서 이미 고통과 좌절, 덧없음을 통달한 모습이라고나 할까. 경기 직후 있었던 한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그녀는 겸손하게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노력도 했고 운

도 따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안다. 재능과 운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난위도의 점프를 구사하면서 몸을 수없이 뒤틀고 회전한 결과 김연아의 척추는 보통사람보다 왼쪽으로 10도 정도 휘어져있고, 그녀의 오른발의 신체연령은 이미 40대라고 했던가.

변하지 않는건

우리가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

최근 두 차례의 직접선거를 치르면서 사회복지현장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모든 후보가 일만시간을 훌쩍 넘는 길고 긴 세월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달인이 된 분들이다. 이번 일을 통하여 선거에서는 진정한 승자도 진정한 패자도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당선은 했든 낙선은 했든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과정에서 난 생채기를 치유하고 추슬러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앞으로 3년마다 이런 행사를 치러야 한다면 기대감이 들기보다 벌써부터 피로감이 몰려오는 건 나만의 기우일까?

시론

보편적 복지제주 불가능할까

1km 도로포장비용 30억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투자한다면



고현수

제주장애인권포럼 상임대표

며 칠전 페이스북에 도내 국립대학교 총장까지 지내고 명퇴하신 분이 쓴 글을 유심히 본 적이 있다. 제주도가 도로공사 17km 포장 예산으로 524억을 배정하였는데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582억으로 엇비슷하다며 교육을 천시하는 제주도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사실 제주도의 교육투자비는 이보다 높다. 법정전입금을 포함하면 약 1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분의 말씀은 토건중심의 개발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 달라는 것이다. 이 분의 주장대로 1km 도로를 포장하는데 약 30억원이 산술적으로 소요된다. 도로 포장 1km의 가치인 30억원을 지역아동센터에 투자한다고 하자. 1개소 당 4천만원씩 제주도에 등록된 70개소 대부분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동료들을 아실 것이다. 4천만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장 아동들 끼니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진 환경에서 교육도 가능하다. 월 1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종사자 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의 질 역시 높아질 것이고 결국 아동들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제대로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 지는 것과, 방임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되어 이들에 의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추가비용을 들이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까. 수해방지예산을 조기에 대폭 투자할수록 수해를 덜 입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에게의 투자, 보편적 복지향한 첫 단초

제주도의 SOC사업(사회간접자본)예산은 2013년 기준 1조 3846억원 규모로 전체 도예산 3조 6668억원의 37%선이다. 도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중 5% 정도는 정부 매칭 펀드가 아닌 자체 투자재정으로 금액으로는 약 700억으로 추정된다. SOC추진사업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국가의 성장전략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700억원의 상당부분을 사람중심의 복지재정으로 투자하고 사용가능한 가용재원이 약 4천억원 규모인데 이 중 상당규모를 보육·사회적 일자리·실업·건강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한다면 도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다를 것이다. 문제는 도지사의 마인드와 의지이다. 외형적 개발중심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도백인지, 아니면 탄탄한 복지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다고 판단하는 도백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스스로 행복한지 유의미한 조사결과가 있다.

2013년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의 도민 행복도 조사결과를 보면 행복 수준은 낮은 편이고 그 중 만족도가 높은 행복구간은 자연환경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행복구간은 건강과 복지영역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 조사기관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일 수도 있다. 전국대상으로 확대했을 경우 제주도민의 행복도가 높을 수도 있고 조사방법과 설문지의 구성방법에 따라 오류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이 발표한 제주의 삶의 질 관련 통계 역시 비슷하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비만을 광역시·도 전국 1위, 흡연율과 음주율은 3위, 김용익 국회의원실 발표 자살자수 전국 광역시·도 5위이다. 이즈음 되면 도로포장 1km에 소요되는 30억원과 지역아동센터에 투자하는 30억원의 가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제주만큼 사통팔달 모두 걸린 곳도 또 있을까.

기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서비스는 누가 하는가



김명재

대정읍

2014 갑오년 청마의 해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은 대부분 당찬 각오와 새로운 계획으로 올 한 해는 꼭 달성하고 이루리라는 목표를 갖고 첫 출발을 시작한다.

해마다 신문과 보도의 첫 페이지는 복지예산 등 지역주민과 사회복지 수혜자에게 돌아갈 복지의 정책방향이 화두에 오른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주기별 단계 중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빠져터 거렸을 때는 간혹 사회문제로 이어 지기도 한다.

이곳 서귀포시의 최남단 대정 지역도 예외일수는 없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예산

과 세분화 되어가고 있는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대상자들 중 일부는 기존에 제공받고 있던 서비스가 중지 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전후사정과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고함을 지르고 심한 경우 폭행까지 이어지게 되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들까지 난감해지기도 한다.

대정읍에서는 공적부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수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역의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고자 군장병과 연계한 사랑 실은 공부방 운영,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해드리기 등 여고생들의 재능나눔 활동, 다문화가족을 위한 의료비지원, 자생단체들의 사랑의 밑반찬 전달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추진한 환경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만찬 초대 등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실천 그리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접근 기회를 넓히고 제도권 내의 취약계층에 제공되어야 할 서

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은 큰 귀와 작은 입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지역주민들 속에 있었기에 더불어 사는 대정 따듯하고 행복한 대정을 만들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이 해결해야하는 몫만은 결코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받은 만큼 다시 사회로 재환원시켜 지속적인 환류를 하게끔 하여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할 때 복지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다.

생각의 빅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대정읍은 복지물음표(?)를 던져 복지느낌표(!)로 답을 얻고자 민간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연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희망 대정을 위해 지역주민들 사이로 청마의 기상으로 거침없이 들어가고자 한다.

■ 청소년지도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계약직 청소년지도사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정규직 전환 시행 급선무



▲지난달 18일 도의회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주최한 '청소년지도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가 진행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지난달 18일 도의회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청소년지도사 및 관계공무원, 일반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지도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근무실태 및 임금현황 등 열악한 처우를 파악해 개선 방향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해 말 청소년지도사들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항의시위한데 따른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를 주최한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제주도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활동 증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토평청소년문화의 집 부윤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지도사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국가 자격점정에 합격한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수련시설

에 배치해 제주도 내 청소년수련관 3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19개소 등 22개소에 청소년지도사 49명을 배치해 근무하고 있으나 모두 1년 단위 재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인력을 배치해 장기근속자의 경우 11년간 한 직장서 근무하고 있지만 무기계약 전환이나 정규직을 추진하지

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부윤담 청소년지도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제주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라대

밀하계는 정규직이 아니고 현재의 급여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처우개선으로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실행을 위해 진 교수는 "T/F팀을 구성해서 제주지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의 고민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하며, 타 지자체의 청소년지도사의 고용 및 처우 개선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를 포함한 22개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편입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예산액이 3조6000천원 중 44억으로 0.12%에 불과하다"며, "제주도 청소년 1인당 배정 계산액은 3만5000원으로 경기도 7만원에 비해 1/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청소년 육성예산을 9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시행해야 제주청소년이 겪는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강승부과장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제주와 많이 다르며, 재단을 설립해서 시와 자체 수입을 통해 운영을 하는 부분은 제주도와 차이가 있다"면서도 "성남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마을멘토사업과 같은 색다른 사업은 제주에서도 도입해 볼만 하다. 공공법인설립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전담공무원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년차 수 대비 급여 증가, 시간외 수당, CCTV설치 등에 대한 부분은 지침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논의 중에 있으며, 예산부분이 투입되면 해결될 문제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청소년업무전담 위한 공공법인 설립 제안

청소년지도사의 고용 및 처우개선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않아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8년 이후 7년간 임금이 동결돼 11년차나 1년차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있다. 호봉제 및 이에 상응하는 직무수당, 근속수당, 초과수당, 국가자격수당 등을 포함한 청소년지도사 직렬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윤담 청소년지도사는 전국타시도 정규직 채용 및 무기계약 전환 사례로 강원도 양양군 청소년수련관과 삼척시 원덕 청소년문화의 집, 전라남도 순천 청소년수련관 등을 예로 들며 "제주는 전국 인구대비 가장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 중임에도 청소년지도

학교 진은설 외래교수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을 모두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개념과 그 전문성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단지 기간제 근로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 교수는 대안으로 "제주지역에 ▲공공성을 띤 공공법인의 설립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채용▲계약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진 교수는 "무기계약직은 업

실시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주지역의 적합한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대한 모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남청소년문화의 집 김선영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이 대상으로 존재할 뿐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을 만드는 수행 주체들의 역할이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발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소년 육성 예산 조속한 확대 편성과 청소년 육성전문재단 설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 청소년 육성예산은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 8개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1) - '봄꽃의 유혹'

제주의 겨울에서 다가오는 봄꽃의 유혹



제주도는 그야말로 신비하고도 설레는 자연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보물섬입니다. 이제 달력 한 장만 걸으면 추운 겨울이 지나고 설레고 따스한 기운 가득한 봄의 계절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새하얀 설경이 가득해 보이는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이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반면, 바닷가 쪽에서는 벌써 매화와 유채가 얼굴을 내밀며

파스하고 향기로운 꽃향기로 우리의 코 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폭설로 인해 온통 새하얀 세상으로 여객잔쪽 움츠리며 추위 속에서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 이렇게 겨울과 봄이 공존하고 있는 신비롭고 새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제주에서 몽생이 기자단은 3월의 문턱에서 봄의 향기를 전달해 주려 합니다.

봄이 되면 우리곁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꽃, 수선화와 매화.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인 2월이 되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따사로운 햇살을 기다렸다는 듯 작고 예쁜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로는 멋지고 당당한 하얀한라산을 배경으로 아기자기하고 생명의 향기 품은 조그맣지만 앙증맞은 봄꽃들은

우리에게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설렘과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자연과 그 자연이 가져다 주는 이런 선물 하나 하나에 감사함이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이런 봄꽃의 유혹 가득한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몽생이 기자단이었습니다.

도심에서의 늘 일상적이고 바쁜 하루하루, 잠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찾으려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의 곁에 가만히 피어오르고 있는 이 조그만 봄꽃들을 쉽게 찾아낸다면 이것이 바로 힐링이 아닐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늘 있습니다.

주말, 멀리 교외로 나가도, 아님 가까운 우리동네 산책길도 좋습니다. 아직은 추위 두꺼운 옷을 입고 외출을 해야 하지만 잠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걸으면 분명 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고민않고 넘어가준다면 겨우내 움츠리고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도 제주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이상 몽생이 기자단이었습니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법률상담터 ⑦

존엄사와 사전의료 의향서



정 광 영법무관
제주지역 법률상담터

올해로 칠순을 맞이한 A씨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칠십 평생 모아놓은 돈을 평소 이용하던 복지관에 기부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건강한 죽음을 맞이 위해 운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던 A씨는 얼마 전 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말기 암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A씨의 친구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깨어날 가망도 없는 상태였는데 가족들의 요청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고통스러운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친구처럼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해 살기보다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만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한다.

A씨와 같이 이른바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 '사전의료 의향서'이다. 2009년 대법원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에서 김할머니의 존엄사를 위해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구하는 가족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의향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전의료 의향서란, 죽음에 임박하여 자기에게 제공될 치료의 종류나 방법에 대해 직접 알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사용하도록 의식이 명료한 상황에서 작성해두는 서식을 말하는데, 죽음에 가까워졌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 작성

하는 것이다. 사전의료의향서가 필요한 이유로는 일단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면 현대 의학은 뇌사 상태라 할지라도 인공호흡, 심폐소생 등 연명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보호자가 더 이상 단독으로 연명치료 중단결정을 할 수 없게 되고,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경우 환자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를 누구도 행사할 수 없으며, 연명치료의 병원비용이 보호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위 의향서는 자신의 담당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작성하게 되고 언제라도 내용을 바꾸거나 폐기할 수 있다. 서면양식은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홈페이지(sasilmo.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실천모임에서는 의향서의 작성 및 보관도 돕고 있다.

사전의료 의향서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경우, 위 실천모임 홈페이지나 사무실(02-2281-2670)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

INFO

법률상담터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을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민과 사법제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상담터 이용방법
- 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702-3782